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예비 타당화*

김용훈**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프로그램 개발 |
| 2. 이론적 배경 | 4. 맺음말 |
-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됨 정체성에 기반을 둔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내용 타당도, 수용성, 실행 가능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아버지 양육참여 및 부성 개입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면담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 경험, 정체성 인식, 공동양육 경험 및 프로그램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령기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과 참여 의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정체성 구조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됨 정체성의 비구조화와 공동양육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요구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인식, 관계 조율, 양육 행동 실천, 반성적 성찰을 통합한 총 8회기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예비 적용 결과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과 높은 수용성이 확인되었다. 또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부교수

한, 주 1회, 회기당 90-120분의 운영 구조는 학령기 아버지들의 생활 맥락을 고려할 때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 참여를 정체성 재구성과 가족체계 맥락에서 접근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서, 향후 효과성 검증 연구와 지역사회 기반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아버지됨 정체성, 아버지 양육참여, 공동양육, 프로그램 개발, 예비 타당화

1.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전통적인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넘어, 자녀 양육과 가족 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존재로 재정의되고 있다(이운진, 김아름, 임준범, 2016). 이러한 변화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성 역할 인식의 전환, 자녀 발달에 대한 부모 책임의 확대 등 사회적 맥락과 맞물려 있으며, 가족학 및 발달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아버지됨(fathering)’이 주목받고 있다. 아버지됨은 생물학적, 법적 지위로서의 아버지(fatherhood)를 넘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상호작용, 정서적 반응, 돌봄 및 교육참여 전반을 포함하는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정체성 과정으로 이해된다(Volling et al., 2019). 즉, 아버지됨은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화하는가에 따라 양육참여의 방식과 질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 역할을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자녀 발달에 독자적이고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아버지 효과(father’s effect)’ 연구들과도 일관되게 연결된다(Cabrera, Volling, & Barr, 2018).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민감한 상호작용, 놀이 참여, 학습 지원이 영유아기뿐 아니라 학령기 전반에 걸쳐 자녀의 인지적 성취와 사회, 정서적 역량과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으며(Rollè et al., 2019), 초기 부자 상호작용의 질은 이후 발달 궤적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Sethna et al., 2017). 최근에는 아버지의 정서적, 행동적 관여가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과 정서적 유능성을 증진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함이 강조되고 있다(Puglisi et al., 2024).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됨 정체성의 성숙이 양육참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며, 그 효과가 아동 발달 전반에 걸쳐 지속됨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 개인의 발달을 넘어 가족체계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정체성에 기반을 둔 양육 실천은 배우자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내 정서적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양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 Montigny et al., 2020). 특히 공동양육은 아버지 양육참여의 효과가 가족체계 내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지속하는 핵심적인 관계 맥락으로, 국내 연구에서도 공동양육 수준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가족 기능 요소로 확인되었다(김수아, 2021). 이는 아버지됨 정체성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 구조를 재조정하는 중심 기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정책적 차원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양성평등 돌봄 실현을 위해 남성 참여 확대와 가족 친화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3), 장시간 노동과 경직된 직장 문화, 부양자 중심의 사회 규범은 여전히 많은 아버지에게 직업-가족 역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양소남, 2013).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아버지 개인의 역할 인식과 가족 내 상호작용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부부 관계, 아버지 양육참여, 부모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Cowan et al., 2022; Havighurst et al., 2019).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영유아기 양육이나 정서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직면하는 발달 과업과 정체성, 가족, 공동양육 맥락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령기는 자녀의 학교 적응, 학습 지원, 또래 관계 형성 등 부모 역할이 재구조화되

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정체성 기반 개입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과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됨 정체성(fathering identit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위한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요구분석 결과와 전문가 내용 타당도, 참여자 수용성 및 실행 가능성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예비 타당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버지의 정체성 강화와 가족 상호작용 개선을 통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개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요구는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학령기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와 구성은 어떠한가?

셋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와 수용성 및 실행 가능성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1) 아버지됨 정체성의 개념

아버지됨은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상호작용, 정서적 반응, 양육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적, 과정적 개념으로 이해된다(Volli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아버지됨 정체성이란, 아버지가 자녀 양육 맥락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형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양육 행동을 조직하며, 양육 경험을 통해 역할의 의미를 지속해서 재구성해 가는 심리적, 관계적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단일한 태도나 신념이 아니라, 역할 인식, 책임감, 양육 효능감, 반성적 성찰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과정적 정체성으로 이해된다.

선행연구들은 아버지됨 정체성이 명확하고 통합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조절과 정서적 반응 조절이 가능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다(Marsiglio & Roy, 2012; Palkovitz, 2019).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됨 정체성은 양육참여의 양적

수준뿐 아니라 질적 특성을 설명하는 핵심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2) 학령기 발달 맥락에서의 아버지 역할

아버지됨은 생애주기와 가족 발달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는 발달적 과정이다. 학령기에는 자녀의 자율성과 사회적 역량이 확대되며, 아버지는 정서 조율, 학습 지원, 사회적 행동 모델링 등 보다 복합적인 교육적, 정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ollè et al., 2019). 이 시기 아버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학교 적응,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ummings et al., 2010).

특히 아버지는 규칙 설정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구조적이고 도전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촉진하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Grossmann et al., 2002). 이러한 발달적 특성은 학령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개입이 단순한 양육 기술 전달을 넘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체성 기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가족체계 및 공동양육 관점에서의 아버지 역할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을 상호 연결된 하위체계들의 역동적 조직으로 이해하며, 아버지는 배우자 하위체계, 부모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에 동시에 관여하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Minuchin, 1974).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이러한 하위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동양육의 질은 아버지 참여 효과를 매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Feinberg, 2003).

협력적인 공동양육은 부모 간 상호지지와 역할 조율을 강화하고, 일관된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체계의 안정성을 높인다(Cowan & Cowan, 2019). 반대로 공동양육 갈등은 부모-자녀 관계의 기능적 어려움으로 확산될 수 있다(McHale, 1995). 최근 연구들은 아버지 대상 개입에 공동양육 요소를 통합할 때 개입 효과가 가족 기능 전반으로 확장되고 지속할 가능성이 커짐을 보고하고 있다(Cowan et al., 2022).

4) 학령기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개입의 필요성

학령기 가족 맥락에서 아버지 역할수행은 자녀 개인의 발달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공동양육 관계, 가족 상호작용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학령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개입은 정체성, 양육 기술, 관계적 맥락을 통합한 다차원적 접근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정체성 기반 개입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양육 행동을 지속해서 실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접근이다(Palkovitz, 2019).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학령기 아버지의 정체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되, 가족체계와 공동양육 맥락 속에서 실제 양육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프로그램은 역할 인식의 명료화, 공동양육 관계에서의 아버지 역할 재위치 화, 실제 양육 행동의 실천,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라는 변화 기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는 심리교육, 상호작용 활동, 성찰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조화하였다.

3. 프로그램 개발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와 아버지됨 정체성 수준, 공동양육 경험, 가족 상호작용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적 조사와 질적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혼합연구 접근을 적용하였다.

학령기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참여는 개인의 역할 인식과 양육 효능감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공동양육 관계, 가족체계 내 상호작용 구조 등 관계적·맥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단일 방법에 따른 접근보다는, 양적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경향과 요구 수준을 파악하고, 질적 자료를 통해 아버지의 실제 경험과 의미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혼합

연구 설계가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양적 연구참여자 및 자료 수집

양적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경험과 아버지됨 정체성 수준, 가족관계 및 공동양육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만 11~13세 자녀를 둔 아버지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양적 연구(N=100)

설문 항목		구분
연령	20대	2(2%)
	30대	22(22%)
	40대	72(72%)
	50대	4(4%)
학력	고등학교 졸업	8(8%)
	전문대 졸업	12(12%)
	대학 졸업	46(46%)
	대학원 졸업	34(34%)
직업	생산직	2(2%)
	자영업	16(16%)
	서비스직	6(6%)
	사무직	20(20%)
	전문직	38(38%)
	기타	18(18%)
월수입	300만 원 미만	32(32%)
	300만 원 이상	68(68%)
자녀 수	1명	12(12%)
	2명	56(56%)
	3명	24(24%)
	4명 이상	8(8%)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교의 총 5개 학급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11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이 중 105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 누락이 있거나 응답의 일관성이 모자란 5부를 제외한 1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양적 설문 문항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 아버지됨 정체성 인식,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동양육 경험, 가족 기능 등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와 직접 연관된 변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경험과 요구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H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승인번호: 2021-01-07),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성 보장, 자발적 참여 및 중도 철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② 질적 연구참여자 및 자료 수집

질적 연구는 양적 조사만으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실제 양육참여 경험과 아버지됨 정체성 형성 과정, 공동양육 과정에서의 갈등과 조율 경험, 그리고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버지의 양육 경험에 내재한 의미 구조를 이해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1~13세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과 면담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질문은 아버지의 양육 경험과 역할 인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배우자와의 공동양육 조율 과정, 그리고 아버지 대상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각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한 후 전사하

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는 아버지됨 정체성과 양육참여 경험의 의미 구조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과 핵심 구성요소 도출, 회기별 세부 내용 구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질적 분석 결과는 양적 요구분석 결과와 통합적으로 검토되어, 학령기 아버지를 위한 정체성 기반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설계 원리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 목적과 절차, 익명성 보장, 비밀 유지, 자료의 연구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질적 연구 전 과정은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질적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적 연구(N=10)

이름	연령	자녀연령	직업	교육	수입	자녀 수
김○○	39	13	전문직	대졸	300만 원 이상	1
이○○	42	12	사무직	대학원 졸	300만 원 이상	2
석○○	43	11	전문직	대졸	300만 원 미만	2
한○○	43	13	사무직	대졸	300만 원 미만	2
정○○	47	13	생산직	대졸	300만 원 미만	3
박○○	38	11	서비스	전문대졸	300만 원 미만	1
최○○	41	12	자영업	대졸	300만 원 이상	2
윤○○	45	13	전문직	대학원 졸	300만 원 이상	2
장○○	44	11	사무직	대졸	300만 원 미만	3
오○○	49	14	자영업	대졸	300만 원 이상	2

2) 측정도구

① 양적 연구 측정도구

양적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경험, 아버지됨 정체성 인식, 그리고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

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설문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을 목적으로 한 기초 자료 수집 도구로 활용되었다.

측정도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여성가족부 의뢰로 개발한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중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질문지를 기초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발달적 특성과 생활 맥락을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문항 수정 과정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 아버지 역할 인식, 가족 및 공동양육 맥락이 더 명확히 반영되도록 구성 내용을 조정하였다.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아버지 양육 및 부모교육 관련 연구 경험을 갖춘 발달심리 전문가와 양육코칭을 담당하는 관련 학과 교수에게 문항의 적절성, 표현의 명확성,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의 표현과 배열, 응답 범위를 수정한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최종 설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네 가지 하위 영역을 포함한다. 첫째,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 영역(6문항)은 아버지됨 인식, 역할 가치관, 양육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인식 영역(5문항)은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을

〈표 3〉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 설문지: 양적 연구

	질문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일반적인 배경	아버지 됨 인식, 역할 가치관, 양육 자기효능감	1~6번	6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양육 어려움 여부 및 해결 방법	7, 8번	2
	자녀 양육 관심 영역	9번	1
	양육 활성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이유	10, 11번	2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실시 시간과 횟수	12, 13번	2
	운영 방법과 운영자	14, 15번	2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주제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주제	16~18번	3

측정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요구 영역(4문항)은 회기 구성, 운영 시간대, 실습 비중, 교육 운영형태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넷째, 프로그램 주제 선호도 영역(3문항)은 정서코칭, 의사소통, 공동양육 등 아버지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교육 주제를 포함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구성과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② 질적 연구 측정도구

질적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경험과 아버지됨 정체성에 대한 인식,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공동양육 과정에서의 조율 방식, 그리고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면담은 아버지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 구성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면담 질문지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다. 먼저 국내외 아버지 양육 참여 및 부성 역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외 부성 교육 프로그램인 Supporting Father Involvement(SFI) 프로그램과 Dads Tuning in to Kids(Dads TIK) 프로그램에 제시된 주요 개념과 면담 문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됨 정체성, 정서적 관여, 공동양육 경험, 양육 스트레스 및 지원 요구와 관련된 핵심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후 연구자의 부모교육 및 상담 현장 경험을 반영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실제 양육 맥락과 생활 경험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중심으로 예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작성된 예비 문항은 발달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분야의 전문가 3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질문의 내용 적절성, 표현의 명료성, 참여자에게 미칠 수 있는 민감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의 표현을 수정·보완하고, 중복 문항을 정제한 후 최종 면담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면담은 발달심리사 및 부모교육상담사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모든 연구참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 목적과 절차, 익명성 보장, 비밀 유지, 자발적 참여 원칙 및 중도 철회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

서를 제출하였다. 면담은 아버지의 자녀 양육 경험과 어려움, 배우자와의 공동양육 협력 과정,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대와 요구,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선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질적 면담에 활용된 주요 질문 문항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 설문지: 질적 연구

내용	질문
아버지 됨 인식	아버지가 된 이후 삶이나 생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좋은 아버지’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양육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탐색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3-1. 아버지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3-2.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3-3. 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프로그램 운영과 내용	4.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프로그램 방식 및 운영형태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6.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좋은 요일과 시간을 말씀해주세요.
	7.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나요?

3) 분석

① 양적 연구 분석

양적 자료는 데이터 정제 및 코딩 절차를 거친 후 IBM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집단 간 비교나 인과적 관계 검증보다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요구 특성을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 경험, 아버지됨 정체성 인식,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동양육 경험, 가족 기능과 관련된 응답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 운영 방식에 대한 선호, 교육 주제에 대한 요구 경향을 기술통계 수준에서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과 회기 구성, 활동 내용 설계에 반영할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질적 분석 결과와 통합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과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분석 접근은 혼합연구 설계에서 요구분석 단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론적 선택으로, 이후 프로그램 구성 및 타당화 과정의 기초 자료로 기능하였다.

② 질적 연구 분석

질적 자료는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 절차를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모든 면담 자료를 전사한 후, 연구자들은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진술의 단편적 의미보다, 참여자의 경험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연구 목적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식별하여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코드는 지속적인 비교 과정을 통해 유사한 의미 단위로 묶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기 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초기 주제 간의 관계와 위계를 재검토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설명력이 높은 상위 주제로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주제가 전체 자료를 충분히 대표하는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하였다.

분석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드화와 주제 도출 전 과정에서 연구자 간 반복적인 논의를 통해 해석을 조정하였다. 해석의 모호성이 발견될 때는 원자료로 되돌아가 진술의 맥락을 재검토하였으며, 연구자의 선이해가 분석에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분석 전 과정에서 성찰적 기록을 병행하였다. 또한, 일부 분석 결과는 연구참여자에게 공유하여, 연구자의 해석이 참여자의 경험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참여자 검토 절차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최종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 진술문을 선정하여 결과 제시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질적 분석 결과는 학령기 아버지가 경험

하는 양육참여의 의미 구조와 아버지됨 정체성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핵심 구성 요소 도출, 회기별 세부 내용 구체화를 위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4) 결과

① 양적 연구 결과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 경험과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과 참여 의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수준의 기준과 전략은 충분히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먼저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 다수는 양육 과정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일정 수준 이상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육 역할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담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단순한 참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수행의 방향성과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는 비공식적 지지에 대한 의존 경향이 두드러졌다. 부모, 친지, 동료에게 문의하거나 서적 및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체계적인 부모교육이나 전문적 개입을 통해 역할수행을 학습하려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들이 양육 문제를 개인적 노력이나 즉각적인 조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아버지됨 역할을 발달적, 학습 가능한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 양육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영역은 자녀의 학습 지원과 재능 계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버지들이 자신의 역할을 주로 교육적 지원자나 성취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서적 상호작용이나 관계 조율자의 역할 인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는 아버지됨 정체성이 관계적, 정서적 차원보다는 기능적 역할수행에 부분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자녀의 학습 지원과 또래 관계 지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의 학교생활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역할 기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역할수행의 기준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 의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됨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수준의 구조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기술 중심의 부모교육을 넘어, 아버지됨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확장하는 체계적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이론적·실천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② 질적 연구 결과

질적 면담 자료를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핵심 주제, 6개의 하위 영역, 17개의 의미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핵심 주제는 첫째, 아버지됨 역할수행 경험과 정체성의 긴장, 둘째,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 동기, 셋째,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한 요구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핵심 주제인 아버지됨 역할수행 경험과 정체성의 긴장에서는, 참여자들이 자녀 양육의 중요성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 과정에서는 일과 가정의 병행에서 비롯된 시간 부족과 역할 충돌, 양육 참여에 대한 죄책감,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회사 일 때문에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아빠로서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진술을 통해, 양육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

제약 속에서 지속적인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방식과 감정표현에 대한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이한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직도 어색하다”라는 경험을 공유하며,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형성에서 불확실성과 긴장을 느끼고 있었다. 더 나아가, ‘좋은 아버지’에 대한 기준의 불분명성 역시 핵심적인 의미 범주로도 출되었다. “좋은 아버지가 뭘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진술은, 아버지들이 양육 행동 이전에 아버지됨 역할에 대한 기준과 방향 자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버지들이 단순한 양육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아버지됨 정체성의 미구조화와 역할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핵심 주제인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 동기에서는, 이러한 정체성 혼란과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아버지

〈표 5〉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결과: 양적 연구

분석 영역	주요 결과	빈도	백분율	정체성 기반 해석
양육 어려움 경험	양육 과정에서 반복적 어려움 경험	82	82	역할수행 의지는 있으나 지속적 부담과 혼란 경험
양육 어려움 대처 방식	비공식적 지지 및 개인적 판단 중심	82	82	역할을 학습 가능한 정체성으로 인식하지 못함
양육 역할 인식	자녀 학습 성취 중심	36	36	기능적, 부분적 아버지 역할 인식
	자녀 재능, 특기 지원 중심	30	30	성취 조력자 중심의 정체성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	필요 또는 매우 필요	88	88	역할수행에 대한 체계적 지원 요구
프로그램 필요 이유	자녀 학습 지원	48	48	교육참여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
	자녀 또래 관계 지원	44	44	관계 조율자의 역할 요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필요 인식과 참여 의지가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다”, “교육을 받으면 아빠로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진술을 통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재정의의 필요성과 자신감 회복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였다. 또한, 또래 아버지와의 상호지지 경험은 중요한 참여 동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다른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면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진술을 통해, 또래 집단 내 경험 공유와 공감의 아버지됨 역할 이해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들이 개인적 문제해결을 넘어, 관계적, 집단적 맥락 속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핵심 주제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한 요구에서는, 프로그램이 추상적인 부모 역할 교육에 머무르기보다 학령기 자녀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정서적·교육적 역할수행 중심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참여자들은 “아이 감정을 어떻게 읽고 반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숙제나 공부를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진술을 통해, 자녀와의 감정 교류 및 학습·양육 코칭 역량 강화를 핵심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확장과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부부나 가족 간에 대화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집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라는 진술은, 프로그램이 개인 차원의 교육을 넘어 가족 간 소통 증진과 실행 중심의 구조를 갖추기를 바라는 요구를 반영한다. 종합하면, 질적 분석 결과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양육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단순한 양육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아버지됨 정체성의 비구조화와 역할 기준의 불명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버지들은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또래 아버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양육 역할을 재정의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정체성 기반의 체계적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 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결과: 질적 연구

핵심 주제	하위 영역	의미 범주	대표진술
아버지됨 역할수행 경험과 정체성의 긴장	일, 가정 병행의 어려움	시간 부족과 역할 충돌	“회사 일 때문에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양육 참여에 대한 죄책감	“아빠로서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자녀와의 관계 형성 부담	의사소통의 어려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감정표현의 어려움	“아이한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아버지 됨 기준의 불분명성	좋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혼란	“좋은 아버지가 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에 대한 인식과 참여 동기	정체성 혼란 해소 욕구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재정의 필요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자신감 회복에 대한 기대	“교육을 받으면 아빠로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도래 아버지와의 상호지지	경험 공유의 필요성	“다른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어요.”
		공감과 위로 경험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면 힘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한 요구	정서적 관계 중심 교육	자녀와의 감정 교류	“아이 감정을 어떻게 읽고 반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교육적 역할수행	학습 및 양육 코칭	“숙제나 공부를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 관계 확장	가족 간 소통 증진	“부부나 가족 간에 대화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실생활 적응 중심	“바로 집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어요.”

5)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과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인식 및 요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됨 정체성에 기반을 둔 학령기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

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단순한 행동 빈도의 증가나 기술 습득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체성 중심 개입을 통해 지속할 수 있고 내면화된 양육참여 변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아버지됨 정체성 이론, 공동양육 개념, 가족체계 이론과 더불어, 본 연구의 양적, 질적 요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네 개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첫째, 아버지됨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심리교육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과 주요 발달 과업(학업 적응, 또래 관계 형성, 자기조절 발달)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학령기 자녀에게 요구되는 아버지 역할의 의미와 범위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자신을 단순한 보조 양육자나 경제적 부양자가 아닌, 자녀의 정서·사회·학습 발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주체적 양육자로 재인식하도록 돕고, 아버지됨 정체성 형성과 양육 효능감 증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관계적 맥락에서의 아버지 역할 정체성 확장을 위한 가족 관계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공동양육 관점을 토대로 배우자와의 협력적 의사소통, 역할 분담의 조율, 갈등 상황에서의 정서 조절 및 대화 전략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가족체계 내에서 일관된 양육 파트너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아버지됨 정체성이 개인 차원을 넘어 부부 및 가족 관계 속에서 재구성·강화되도록 하였다.

셋째, 정체성에 기반을 둔 양육 행동 실천을 위한 양육코칭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학령기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 상호작용, 생활지도와 훈육, 학습 동기 지원과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사회성 및 또래 관계 지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양육 원칙 등을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아버지가 자신의 가치와 역할 인식에 근거하여 일관된 양육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적용과 역할 연습을 강조하였다.

넷째, 아버지됨 정체성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반성적 사고(정신화) 실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자녀와 배우자의 정서와 욕구를 인식, 해석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상황에 적합한 정서적 반응을 훈련하는 감정코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자신의 정서 경험과 양육 반응을 성찰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아버지됨 정체성이 인지적 이해를 넘어 정서적, 관계적 차원에서 통합되도록 하였다. 각 회기 말에는 개인별 실천 다짐과 가족 공동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정체성 변화가 실제 양육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이 참여자의 인지, 정서, 행동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Yalom & Leszcz, 2005)에 근거하여,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회기당 90-120분, 총 8회기의 집단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각 회기는 아버지됨 정체성 인식-관계 경험-행동 실천-성찰의 순환 구조를 따르도록 구성하였으며, 강의, 실습, 피드백, 집단 나눔, 가정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아버지들이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학령기 자녀 양육에 있어 지속적인 참여와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는 아버지의 역할 인식(인지), 정서적 민감성(정서), 양육 행동의 실천(행동)을 통합적으로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가 자신의 양육 경험을 성찰하고 아버지됨 역할을 재정의한 후, 이를 실제 양육 행동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유지해 나가는 단계적 변화 과정을 목표로 하였다.

1회기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과 아버지 역할 이해를 중심으로 심리교육을 시행하였다. 참여자들은 학령기 아동의 주요 발달 과업(학업 적응, 또래 관계 형성, 자기조절 발달)을 이해하고, 해당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아버지 역할의 의미와 범위를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양육 신념과 실제 행동을 점검·공유함으로써, 아버지를 단순한 보조 양육자가 아닌 양육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버지됨 정체성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회기에서는 일상 루틴과 생활지도를 주제로, 아버지 역할을 일상적 실천 수준에서 구체화하였다. 가정 내 기본 생활 규칙(수면, 식사, 학습, 미디어 사

용)을 점검·재구성하고, 아버지-자녀 공동 일과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양육 참여 자기점검 활동을 통해 참여 시간과 활동 유형을 성찰함으로써, 아버지 역할이 일회적 개입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 속 책임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3회기에서는 감성코칭과 스트레스 관리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정서적 민감성을 강화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정서 신호를 인식하고 공감하며 감정을 명명하는 기술을 학습하였고, 경계 설정과 문제해결 단계를 실습하였다. 비디오 피드백을 활용하여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의 강점과 개선점을 확인함으로써,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됨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다.

4회기에서는 협력적 의사소통과 갈등 완화를 중심으로 관계 조율 역량을 다루었다. 배우자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유형을 점검하고, 관찰-감정-욕구-요청(Observation-Feeling-Need-Request) 구조의 대화 기법을 실습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권위적 통제자가 아닌 관계 조율자이자 협력적 양육 파트너로 기능하도록 하였으며, 가정에서 적용 가능한 가족 대화 규칙을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5회기에서는 학습코칭과 양육 자기효능감 강화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교육 참여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아버지들은 칭찬과 격려, 구체적 피드백 제공의 원리를 학습하고, 과제 난이도 조절과 스캐폴딩 전략을 실습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 학습 과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통제자가 아닌 지지적 조력자로 재정 의하도록 하였다.

6회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가정 규범 설정을 주제로, 일관된 양육 원칙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자녀의 미디어 사용 시간, 콘텐츠, 장소 등에 대한 가족 합의를 하고, 규칙 위반 시의 결과와 회복 절차를 설계하였다. 이후 실제 적용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버지가 규칙 설정과 실행 과정에서 일관성과 책임성을 지닌 양육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7회기에서는 사회성과 또래 관계 지도를 중심으로 아버지 역할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공감적 경청, 문제해결 대화, 갈등 중재 전략을 실습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사회적 발달 지원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강화하였다.

8회기에서는 양육 행동의 유지와 일반화를 목표로, 이전 회기에서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참여자들은 개인별 실천 다짐과 가족 공동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점검 일정을 안내 받았다. 이를 통해 아버지됨 정체성에 기반을 둔 양육참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해서 유지, 확장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이후에는 아동·가족 영역의 발달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소규모 예비 적용을 통해 일부 활동의 난이도와 절차를 조정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와 주요 내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회기	주제	회기 목표	주요 활동	아버지됨 정체성 요소
1	학령기 발달과 아버지 역할 이해	아버지 역할 인식 재구성	발달 특성 심리교육, 양육 신념 점검	양육의 주체로서의 정체성
2	일상 루틴 생활지도	일상 속 역할 책임화	일과표 작성, 참여 자기점검	지속적 책임 주체
3	감정코칭 및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민감성 강화	감정 명명, 경계 설정 실습, 비디오 피드백	정서적 반응자
4	협력적 의사소통	관계 조율 능력 향상	OFNR 대화 훈련	협력적 양육 파트너
5	학습코칭과 자기효능감	교육참여 역할 강화	구체적 피드백 제공, 스캐폴딩 실습	지지적 학습 조력자
6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가족 규범	일관된 양육 기준 확립	규칙 합의, 실행 점검	책임 있는 규칙 설정자
7	사회성과 또래 관계 지도	사회적 적응 지원	갈등 중재 연습, 학교, 지역사회 활동 계획	사회적 발달 지원자
8	행동 유지와 일반화	지속적 실천 강화	실천 다짐, 가족 공동계획 수립	통합된 아버지됨 정체성

7)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수용성, 실행 가능성 검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학령기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은 회기별 구성의 구체화 이후, 프로그램의 내용적 적절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 타당도, 수용성,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효과성 검증에 앞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타당화 절차로서, 본 프로그램이 이론적 설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입인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먼저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아동·가족 영역에서 발달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부모교육 및 가족 중재 경험을 갖춘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검토를 시행하였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핵심 구성 요소, 회기별 주제와 활동이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과 아버지 역할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아버지됨 정체성 개념이 프로그램 전반에 일관되게 통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기 간 구성의 논리적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검토는 회기별 활동에 대한 적절성 평가와 서술형 의견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활동의 설명 방식, 난이도 조정, 예시의 학령기 적합성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의 전반적 구성과 방향성은 학령기 아버지 대상 개입으로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용성은 예비 적용 과정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 검토하였다. 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이 기존의 일방적 정보 전달 중심의 부모교육과 달리, 자신의 양육 경험을 성찰하고 아버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또래 아버지들과의 경험 공유, 실습 중심 활동, 실제 가정 상황에 적용 가능한 과제 구성은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버지들의 요구와 생활 맥락에 부합하는 개입으로서 충분한 수용 가능성을 지님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성은 프로그램 운영 구조의 현실성과 수행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주 1회, 회기당 90-120분, 총 8회기의 구성은 학령

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직장 일정과 가정생활을 고려할 때 운영 가능한 범위로 평가되었으며, 각 회기의 활동과 가정 과제 역시 과도한 부담 없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또는 가족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실행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버지됨 정체성 기반 학령기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은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표 8〉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수용성, 실행 가능성 검토 결과

영역	기준	내용	결과
내용 타당도	목표 적합성	프로그램 목표의 학령기 아동 발달 특성 및 아버지 역할 요구 반영 적절성	학령기 발달 과업(학습, 사회성, 정서 조절)과 아버지 역할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이론적 일관성	아버지됨 정체성 개념의 회기 전반 통합 및 이론적 일관성	정체성 인식-관계 조율-행동 실천-성찰의 흐름이 회기 간 논리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됨
	구성의 논리성	회기 주제 및 활동의 단계적 구성과 상호 연계성	회기 간 목표와 활동이 점진적으로 심화-확장되는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수용성	참여 동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흥미 및 동기 지속 수준	또래 아버지 경험 공유 및 실습 중심 활동이 참여 동기 유발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내용 적합성	프로그램 내용의 실제 양육 맥락 부합성	학령기 자녀 양육과 직접 연결되는 주제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만족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기존 강의식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비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실행 가능성	운영 구조	회기 수·시간·빈도 및 운영 방식의 현실성	주 1회, 회기당 90-120분, 총 8회기 구성은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로 평가됨
	수행 부담	과제 및 활동 수행의 부담 수준(적정성)	가정 과제와 활동이 과도하지 않으며 참여 지속에 부담이 적은 수준으로 평가됨
	현장 적용성	지역사회 및 가족 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	가족센터 및 부모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조로 평가됨

참여자의 수용성과 현장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향후 효과성 검증 연구로 확장되기 위한 기초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 타당도, 수용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결과의 요약은 <표 8>에 제시하였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됨 정체성에 기반을 둔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요구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 수용성, 실행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단순한 행동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인식과 의미 재구성을 포함하는 발달적·관계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령기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과 참여 의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기준과 정체성 구조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양육참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의 역할 기준과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는 중간 수준의 참여 아버지 집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요구는 본 프로그램이 정체성 인식, 관계적 조율, 양육 행동의 실천, 반성적 성찰을 통합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 개인의 양육 역량 강화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 양육과 가족체계 전반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적 개입 모델이라는 점에서 가족과 커뮤니티 관점에 부합한다. 협력적 의사소통, 가족 규칙 설정, 공동 실천 계획 등의 구성요소는 아버지를 가족 내 보조적 존재가 아닌 관계 조율자이자 책임 있는 양육 주체로 재위치 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가족센터, 학교 기반 부모교육, 지역사회 상담 및 가족지원 기관 등 기존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아버지의 양육 고민을 지속해서 지지, 확장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인지·정서·행동의 다차원적 구조로 통합하여 접근하였다는 데 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양육참여의 시간이나 빈도에 초점을 두었던 한계를 넘어, 아버지됨 정체성이라는 내적 기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예비 타당화를 시도함으로써 부성 연구의 이론적 확장을 도모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학령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실천적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총 8회기의 집단 구성으로 학령기 아버지들의 생활 맥락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또래 아버지 간 상호작용과 성찰을 통해 정체성 기반 변화가 촉진되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단회성 부모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속 가능한 아버지 개입 모델로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과 예비 타당화에 초점을 둔 연구로써 제한점을 지닌다. 연구참여자가 제한된 지역의 비교적 소규모 표본에 국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의 아버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검증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운영 모델을 적용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변화의 지속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됨 정체성에 기반을 둔 학령기 아버지 양육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비 타당화를 통해, 어떤 아버지에게 특히 유효한 개입인지와 이를 지지할 지역사회 맥락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를 가족 내 주변적 존재가 아닌 관계와 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근거 기반 개입으로서, 향후 가족 연구와 부모교육 실천 현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수아 (2021).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5(3), 101~124면.
- 보건복지부 (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세종: 보건복지부.
- 양소남 (2013). 아버지의 부성경험: 다양한 역할수행의 긴장과 갈등. *한국디지털정책연구*, 11(2), 375~383면.
- 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pp. 77~101.
- Cabrera, N. J., Volling, B. L., & Barr, R. (2018). Fathers are parents, too! Widening the lens on parenting for children's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3), pp. 152~157.
- Cowan, P. A., & Cowan, C. P. (2019). Enhancing parenting effectiveness, fathers' involvement, couple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development: Breaking down silos in family policy-making and service-delivery. *Journal of Family Theory and Review*, 11(1), pp. 92~111
- Cowan, C. P., Hawkins, A. J., & Cowan, P. A. (2022). Responsible fatherhood programs: Children benefit from a more integrated family approach (Child Evidence Brief No. 14).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Cummings, E. M., Merrilees, C. E., & George, M. W.(2010). (해제) interparental conflict,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adjustment.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5th ed., pp. 154~176). Hoboken, NJ: Wiley.
- de Montigny, F., Lacharité, C., & Devault, A. (2020). The role of fathers in family functioning: A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Studies*, 26(2), pp. 1~16.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pp. 95~131.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pp. 307~331.
- Havighurst, S. S., Wilson, K. R., Harley, A. E., & Kehoe, C. E. (2019). Dads Tuning in to Kid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n emotion socialization parenting program for fathers. *Social Development*, 28(4), pp. 979~997.
- Marsiglio, W., & Roy, K.(2012). *Nurturing dads: Social initiatives for contemporary fatherhood*.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McHale, J. P. (1995). Coparenting and triadic interactions during infancy: The roles of marital distress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pp. 985~996.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Harvard University Press.
- Palkovitz, R.(2019). Expanding our focus from father involvement to fa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1(4), pp. 576~591.
- Puglisi, N., Rattaz, V., Favez, N., & Tissot, H. (2024). Father involve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early childhood: A systematic review. *BMC Psychology*, 12, 675.
- Rollè, L., Gullotta, G., Trombetta, T., Curti, L., Gerino, E., Brustia, P., & Calderara, A. M. (2019). Father involve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A systematic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10, 2405.
- Sethna, V., Murray, L., Netsi, E., Psychogiou, L., & Ramchandani, P. G. (2017). Father-child interactions at 3 and 24 months: Contributions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at 24 month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8(3), pp. 378~390.
- Volling, B. L., Cabrera, N. J., Feinberg, M. E., Jones, D. E., McDaniel, B. T., Liu, S., ... Cookston, J. T. (2019). Advancing research and measurement on fathering and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84(1), pp. 7~160.
- Yalom, I., & Leszcz, M. (2005).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Abstract |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Fathering Identity-Based Program to Enhanc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Kim, Yong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athering identity-based parenting involvement enhancement program for fathers of school-aged children and to preliminarily examine its content validity, acceptability, and feasibility. To this end, previous studies on father involvement and fatherhood interventions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and both quantitative surveys and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athers of school-aged children to explore their parenting experiences, perceptions of fathering identity, co-parenting dynamics, and program need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although fathers demonstrate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and willingness to engage in parenting, their criteria for performing the father role and identity structure were insufficiently organized. Parenting difficulties were closely related not to a lack of skills, but to the underdeveloped fathering identity and co-parenting context. Based on these findings, an 8-session group program integrating identity awareness, relational coordination, parenting practice, and reflective processes was developed. Expert review confirmed the program's content validity, and pilot implementation indicated high acceptability among participants. The program structure—weekly sessions lasting 90–120 minutes—was evaluated as feasible within the life contexts of fathers of school-aged children.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evidence for a fathering identity-based intervention and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effectiveness research and community-based parent education.

Key Words: Fathering identity, Father involvement, Co-parenting, Program development, Preliminary validation

